

- 제 목 : 제39차 이사회
- 일 시 : 2015.9.14(월)12:00
- 장 소 : 황장군 상인점

## 회 의 록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 제39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5. 09. 14(월) 12:00~13:00

○ 장 소 : 황장군 상인점

○ 회의소집통지일 : 2015. 09. 04(금)

○ 참석인원 : 이사 4명, 배석인원 2명

- 이 사 : 김상근, 김성수, 박태영, 이기연

- 배석인원 : 비슬원장 박임순, 담당 곽명숙

### 1. 성원보고

○ 곽명숙 담당이 재적이사 7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김상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다.

### 2. 개회

○ 김상근 대표이사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12시 수정복지재단 제39차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 3. 대표이사 인사

○ 김상근 대표이사가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법인의 주야간보호센터 증축사업이 완료되어 의결할 안전과 운영규정개정 등에 고견을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다.

### 4. 전차회의록 처리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 처리를 상정하고, 곽명숙 담당에게 보고하게 하다.

○ 곽명숙 담당이 전차회의록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다.

○ 박태영 이사가 전차회의록을 검토한 후 이의 없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김성수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 처리에 관한 이의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

### 5. 부의안 심의

○ 제1호의안: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제·개정(안)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1호의안인 법인 및 산하시설의 운영규정 제·개정(안)을 상정하

고 광명숙 담당에게 설명하게 하다.

- 광명숙 사회복지사가 자료에 의거 (가칭)수경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정과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에 관해서 설명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법인의 기능보강사업인 수경주간보호센터의 시설신고 및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이 필요하며, 법인 산하시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 드리다.
- 김성수 이사가 수경주간보호센터의 운영규정은 법인의 운영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주간보호사업 관련 기본사항들이 잘 규정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다.
- 이기연 이사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은 회의 자료를 통해 잘 살펴 보았는데, 정년에 관한 조항변경은 직원 간 편차를 줄여주어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하며, 반차규정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며 명확한 규정을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 박태영 이사가 동의하며 인사규정도 근무연한에 너무 엄매이지 말고 개정을 통해서 열정 있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하다.
- 김성수 이사가 비슬원의 신원인수인 관련 규정이 없었는가 하고 묻다.
- 박임순 원장이 신원인수인에 관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신원인수인에 대한 구체적 권리, 의무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설명 드리다.
- 박태영 이사가 법인 및 시설들의 운영규정 제·개정을 통해 운영이 원활히 잘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이기연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이사가 의안에 대해 의의 없음을 묻고,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

#### ○ 제2호 의안 : 수경주간보호센터 설치신고(안)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2호의안인 수경주간보호센터 설치신고(안)을 상정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2015년 기능보강사업인 주간보호사업을 완료하고 설치신고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 드리다.
- 박태영 이사가 공사과정도 힘들었을 텐데 원만히 잘 완료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시설 신고 후 동일건물 내의 주간보호사업이니 비슬원과의 병설가능하다면 두 개의 사업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동일지면, 동일건물 내의 사회복지사업인 관계로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병설하여 병용과 겸직이 가능한 부분은 병용과 겸직을 하겠다고 설명 드리다.
- 이기연 이사가 세입부분에 차입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차입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

운가고 묻고, 현재 대기 중인 이용대상자는 없는가라고 묻다.

- 박임순 원장이 현재 3명 정도 등급신청 및 상담 중에 있다고 설명 드리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수경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3명의 직원이 근무하여야하는 상황이라 최소 1,000만원 정도의 초기운영자금은 필요한 상황이라 차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드리다.
- 김성수 이사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다.
- 박임순 원장이 지난달부터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존 재가서비스대상 어르신 및 보호자분들을 통해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 드리다.
- 박태영 이사가 시설 신고 후 시설 간 상호 협조하여 새로운 사업을 잘 꾸려가 주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이기연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의 없는지를 묻고,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제2호의안을 가결 처리하다.

#### ○ 제3호의안 : 시설장 임용(안)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3호의안인 시설장 임용(안)을 상정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회의 자료에 의거 현재까지 비슬원과 단비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박임순 원장이 겸직을 하였으나, 2015년도 대구시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겸직이 불가하여 박임순 원장의 겸직사항을 해제하고 단비노인복지센터 소장으로 전담하고 비슬원의 시설장을 임용하게 되었다고 설명 드리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수경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은 비슬원의 겸직이 가능하여 장기요양사업 간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비슬원의 원장이 수경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을 겸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 드리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2년 가까이 시설의 업무를 전담해온 광명숙 사회복지사는 업무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책임감과 업무추진력도 뛰어나, 비슬원 원장과 아울러 수경주간보호센터 시설장도 겸직하도록, 법인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진 후 시설장으로 임용하고자 한다고 설명 드리다.
- 박태영 이사가 직원의 역량은 함께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니, 역할을 맡기면 잘 운영해 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다.
- 김성수 이사가 이에 동의를 표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이기연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의 없는지를 묻고,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하다.

○ 제4호의안 : 비슬원 시설구조변경(안)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4호의안인 비슬원 시설구조변경(안)을 상정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박임순 원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박임순 원장이 비슬원과 비슬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통합과 수경주간보호센터 개소에 따른 시설 상호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구조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 드리다.
- 김성수 이사가 두 동의 건물이 증축공사로 인해 한 건물로 이뤄지고 2개의 장기요양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구조를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하다.
- 박태영 이사가 시설의 평면도를 살펴본 바 규모는 작지만 적절한 구조변경을 통해 입소어르신들의 서비스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다.
- 이기연이사가 그동안 시설운영에 노고가 많으셨다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김성수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의 없는지를 묻고, 참석인원 4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처리하다.

○ 기타사항

- 박태영 이사가 임용 될 광명숙 원장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자고 말씀드리다.
- 광명숙 원장이 부족하지만 이사님들의 격려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르신들의 요양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다.

6. 폐회

- 박태영 이사가 폐회하기를 동의하고, 이기연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폐회에 이의 없음을 묻고,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13:00에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과 같이 제39차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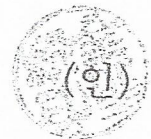
2015. 09. 14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근



이 사 김성수



이 사 박태영



이 사 이기연

